

朴龍喆에 있어서 하우스만 詩論의 受容

韓 啓 傳*

1

朴龍喆에 의해서 「文學」誌 第2號에 권두 논문으로 번역하여 수록되었던 A.E. 하우스만의 유일한 詩論인 「詩의 名稱과 性質」(*the Name and nature of poetry*)은 박용철의 시론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다. 「詩文學」創刊으로부터 시작되었던 朴龍喆의 文學活動은 1938年 그의 作故 때까지 10여년에 불과했지만, 이 기간에 발표되었던 수다한 詩作品, 演劇評, 書評, 月評, 번역물들을 제외하고 순수한 詩論과 詩批評만을 열거하더라도 10여편을 상회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런데, 박용철의 初期의 시론과 後期の 시론 사이에는 하우스만 시론의 번역을 계기로 해서 커다란 質的인 變化를 나타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初期에 발표되었던 「詩文學 創刊에 대하여」(1931)와 「辛未詩壇의 회고와 비판」(1931) 등에 나타났던 朴龍喆詩論의 특징이란 作品과 讀者 사이의 關係에 서는 鑑賞者로서의 詩論에 머물고 있던 상태이었다. 그것도 初期浪漫主義詩論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 것으로서 素朴한 情緒理論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한 예를 初期 詩論 가운데서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거기에서 받는 印象은 或은 悲哀 歡喜 憂愁 或은 平穩 明淨 或은 激烈 崇嚴 等 진실로 抽象的 形容詞로는 다 形容할 수 없는 그 自體數대로의 無限일 것이다……詩의 心境은 우리 日常生活의 水平情緒보다 더 高尚하거나 더 優雅하거나 더 섬세하거나 더 壯大하거나 더 激越하거나 어떠한 '더'를 要求한다. 거기서 우리에게

* 人文大 助教授(國文學專攻)

게까지 '무엇'이 흘러 '나려와'야만 한다."¹⁾

이에 비해서, 하우스만의 詩論 번역 이후에 발표되었던 詩論들은 初期 詩論들과는 判異하게 질적인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의 이 시기에 발표되었던 시론 중에서도 「乙亥詩壇總評」(1935)과 「技巧主義說의 虛妄」(1936) 그리고 「詩的 變容에 대해서」(1937) 이 세 편은 朴龍喆의 詩論 가운데서는 물론, 한국의 근대 시론 가운데서도 기념비적 評文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詩的 變容에 대해서」는 作品과 讀者 사이의 關係가 아닌 詩와 作者와의 關係, 즉 創造過程으로서의 洞察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詩論은 우리나라 근대 시론 중 유일무이한 創造過程으로서 시론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乙亥詩壇總評」과 「技巧主義說의 虛妄」은 30년대 詩論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評文에 속한다. 이 論文들은 林和의 「曇天下의 詩壇一年」에 대한 反駁으로 쓰여졌으며, 그 때문에 시단총평과 시단시평의 形式을 빌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朴龍喆의 詩論은 林和에 대한 비판은 물론 金起林 비판으로까지 나가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朴龍喆의 詩論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이 점을 살펴보고자 함이 본고의 주된 목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하우스만의 시론이 朴龍喆의 시론과 詩批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펴보고 한다.

2

하우스만의 詩論 「詩의 名稱과 性質」은 1933년 케임부릿지 大學의 레슬리 스티븐 강연으로 이루어진 그의 末年에 남긴 유일한 詩論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同年에 맥미란 出版社와 케임부릿지 出版社에 의해서 곧장 刊行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당시에 상당히 무게 있는 詩論으로 취급되었음이 짐작된다. 더구나 이 방면에서 가장 권위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R.W. 스톨먼 編著 「詩論選集」²⁾에 하우스만의 바로 이 論文의 여러 중요한 部分들이

1) 朴龍喆全集 第一卷(詩文學社). p. 142.

2) R.W. Stallman, ed.; The Critic's Notebook, Uni. of Minnesota Press, 1950.

발췌 수록되었고 또한 여러 批評家들의 評文 속에서 되풀이 引用되어 있음을 보아서도 古典的인 의의가 충분히 인정되고도 남는다. 譯者인 朴龍喆의 ‘譯者附記’에서도 이 論文이 「英國文學界에서 대단 重視된 것은 런던 타임스紙가 즉시 그 概要를 記載했던 것으로 一端을 짐작할 수 있다」고 기술된 바 있다.

그렇다면 西歐 詩論의 史的 맥락 속에서 하우스만의 시론이 접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이며, 다음의 흐름에 그것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이 물음은 朴龍喆 詩論에서의 하우스만의 수용을 고찰하기에 앞서서 우선 제기되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다른 어떤 전문적인 시 이론 발달에 관한 저작 속에서 하우스만 시론의 위치를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筆者로서 우선 손쉬운 곳에 있는 다음 두 종류의 서적을 참조하려고 한다. 그 하나는 앞서도 지적한 바 있는 R.W. 스톤의 「詩論選集」이며, 다른 하나는 프린스턴大學 出版部 刊行 「詩學事典」³⁾이다.

먼저 「詩論選集」부터 살펴보자. 「詩論選集」에서 하우스만의 詩論이 발췌 수록되어 있는 부분은 일일이 매거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곳에 나타나 있다. 그 중에서 筆者의 관심을 끄는 것으로는, 하우스만 詩論의 주된 입장이 문학작품에 대한 批評의 입장이 아니라, 문학작품의 創造過程으로서의 洞察을 겨냥하는 특수한 詩論에 속한다는 점이 그 한 특징이며,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은 하우스만의 시론이 그보다 훨씬 후에 클리언스·부룩스에 의해서 이름부처진 ‘패러프레이즈反論’의 범주에 귀속된다는 점이다.

또 다시 하우스만 詩論이 어떤 위치에 놓이는가를 가르쳐 주는 곳은 프린스턴大學 出版部刊의 「詩學事典」에서다. 시론의 위치를 논하는 일은 일종의 시의 이론을 분류하는 방법에서 찾아질 수 있다. 그러나 시의 이론을 분류할 最善의 方法은 존재할 수 없다. 단지 어떤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좋은 方法일 뿐이다. 「詩學事典」의 「詩의 理論」項을 보면, 하우스만의 「시의 명칭과 성질」은 초기 리차드 學派나 純粹詩 이론의 아베·브르몽과 더불어 광의의 순수시 이론과 부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詩學事典」에

3)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서의 시의 이론으로는, 첫째 시가 ‘인생의 복사’라든가 ‘관습의 거울’ 혹은 ‘진실의 반영’ 등 素朴한 예술 리얼리즘을 주창하는 것과, 두째 시에서 도덕성과 수사학을 존중하는 인식과 기교 우위론, 셋째 ‘작품은 그 자체 자율적인 세계를 지닌다’ ‘시는 우선 시로써 고려해야지 다른 것으로 생각될 수 없다’는 명제가 지배적인 형식주의 이론 등으로 갈라 설명되고 있다.

그런데 하우스만의 시론은 위 세 종류의 이론과 판이하다. 하우스만의 시론은 「詩學事典」의 ‘感情表現의 理論’項에서 논의될 뿐이다. 感情表現(*expressive*) 이론이란, 무엇보다도 영혼을 중시한다. 그것은 技巧으로써는 성취될 수 없으며, 그러므로 그것은 비평가에 의한 분석이 불가능한 존재인 것이다.

당대에는 물론 그 이후로도 批評史에서까지 주목의 대상이 되어온 하우스만의 장편시론을 朴龍喆이 시간의 간격을 거의 두지 않고 어떻게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었던가는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사실로 인식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20年代의 西歐 象徵主義 詩論의 受容과 더불어, 또한 이 論文의 번역과 거의 同時代에 이루어진 金起林의 모더니즘 시론 수용과 함께 이 나라 詩論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점이라 하겠다. 물론 그 번역이 完譯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한 朴龍喆 자신이 하우스만의 시론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었다는 사실은 지금의 안목에서 볼 때, 그대로 아쉬운 채로 남아 있는 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論文이 朴龍喆 시론에 受容됨으로써 한국 근대시론에 끼친 영향을 결코 과소평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박용철의 시론이 30년대 純粹詩의 이론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이 譯文의 텍스트는 역시 ‘譯者附記’에 의할 것 같으면, 케임부릿지 大學 出版部本으로 되어 있으니, 아마도 그 初版本일 것임에 틀림 없다. 이 譯文을 譯者가 밝힌대로, 英國의 17, 8세기 시에 대한 논의 부분 10여 페이지가 번역의 편의를 위해서 省略했다고 하더라도 기실 이 部分을 省略한 譯者의 실수는 결코 덮어줄 성질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省略된 부분 속에도 하우스만의 주요한 이론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金允植 교수의 原本과 번역본 사이의 校合⁴⁾에 의할 것 같으면, 朴龍喆 자신이 밝힌 省略

4) 金允植, 近代韓國文學研究, 一志社, 1973. p. 356.

부분 말고도 本文 속의 註 두 곳과 다섯 편의 詩 引用이 포함된 두 페이지가 또다시 完全히 省略되어 있으며, 其他의 페이지에 引用된 全文의 詩도 단 몇 줄로 줄여서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그런대로 譯文이 原文 본래의 의미를 거의 전달시켜 주는 것은 우리에게 꽤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3

하우스만의 詩論이 朴龍喆에게 미친 영향은 여러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을 터이지만, 그 중의 하나는 「詩的 變容에 대해서」에서 나타난다. 박용철의 마지막 시론인 「詩的 變容에 대해서」는 한국 근대 시론에서는 처음으로 나타나는 先詩的 詩論, 즉 스토울먼의 분류에 의한 시론의 세 가지 범주 중 ‘創造過程으로서의 洞察’에 해당한다. 스토울먼에 의한다면, 시론은 세 가지 範疇로 분류 될 수 있다. 그것은 「詩論選集」을 편찬할 때에 원용된 方法論으로서 例를 들면 ① 創造過程으로서의 洞察, ② 藝術作品的 本質把握 ③ 批評家의 分析作業 등 세 범주로 나뉜다. 여기서 創造過程으로서의 洞察이라 함은 作者와 讀者, 詩作品 사이의 關係에서 詩人과 詩作品 사이로만 좁혀지는 關係樣式이며,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詩創作에 관한 原論的인 탐구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批評家의 分析作業이란 創造過程으로서의 洞察에서처럼 作者와 詩作品 사이에 촛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詩와 讀者 및 批評家와의 關係로 軸이 바뀌어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詩批評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藝術作品에 대한 本質을 파악하는 일이란 이 두 범주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이것은 對象으로서의 詩 자체, 다시 말하면 詩의 意味와 形式의 문제가 중요한 시적 탐구의 과녁이 됨을 뜻한다.

朴龍喆의 「詩的 變容에 대해서」의 創造過程에 대한 洞察이 하우스만의 시론에서는 하나의 基本 立場으로 등장하고 있다. 하우스만은 그의 論文 序에서 「詩의 名稱과 性質」보다 우선하는 데마는 ‘詩作의 技術’임을 못박고 있다. 「모든 條件이 되어 가지고 있는 自然法則과 좋은 詩作이 줄 수 있는 快

感의 秘密한 源泉을 包括하고 있는 潛在的 基礎」⁵⁾에 대한 探索, 이점은 하우스만이 밝힌 바대로 그 쪽에서도 詩의 批評家들에게서 매우 소홀하게 취급되었음이 틀림없다. 朴龍喆이 이 대목을 놓쳤을 까닭이 없다. 朴龍喆로서 先詩的 詩論을 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던가 하는 것은 「詩的 變容에 대해서」가 그의 最後의 詩論이란 점에서 그 사정이 잘 드러나 있다.

이같은 하우스만의 詩創作에 대한 관심은 그의 論文 속의 기본입장으로서 일관되어 있다.

내 생각에는 詩의 產出이란 第一階段에 있어서 能動的이라는 것보다 오히려 受動的 非志願的 過程인가 한다. 만일 내가 詩를 定義하지 않고 그것이 屬한 事物의 種別만을 말하고 말 수 있다면, 나는 이것을 分泌物이라 하고 싶다. 樅나무의 樹脂같이 自然스런 分泌物이던지 貝母 속에 眞珠 같이 病的 分泌物이던지간에 내 自身の 경우로 말하면 이 後者인줄로 생각한다. 一貝母 같이 賢明하게 그 物質을 處理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나는 내가 조금 健康에서 벗어난 때 以外에는 별로 詩를 쓴일이 없다. 作詩의 過程 그것은 愉快한 것이지만은 一般으로 不安하고 疲勞的인 것이다. ……점심때 한 파인트의 麥酒을 마시고—麥酒은 腦의 鎮靜劑라 나의 午後의 時間은 나의 一生에 가장 非智性的의 것이 된다.—나는 二三時間의 散步를 나가는 것이다. 特別히 무엇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周圍의 것을 둘러보고 季節의 經過를 따르면서, 내가 걸어갈 때에, 내 마음 속으로 감각한 說明할 수 없는 感動을 가지고 어느때에는 詩의 一二行이 어느때에는 한꺼번에 一節이 흘러들어 온다.—그것이 그 詩의 一部를 形成해야할 運命에 있는 詩全篇의 희미한 想을 (앞서 있던 것이 아니라) 同伴해 가지고, 그런 다음에는 한 時間 가량의 沈靜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서암은 다시 솟아오른다. 나는 솟아오른다고 한다. 이렇게 腦에 와서 提供되는 示唆의 源泉은 내가 認識할 수 있는 限에서는 深淵即(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胸窩이다. 집에 도라오면 나는 그것을 적어 놓는다.—다음날 靈感이 다시 찾아 오기를 바라고 빈틈을 남겨놓고, 어떠한 때는 내가 受容的인 또 期待的인 心境을 가지고 걸어나다니라면 바라든대로 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떠한 때에는 나는 그 詩를 붙들어서 智力으로 完成시켜야 한다. 그것은 試練과 失望을 포함한 焦慮와 惱苦의 일이다. 어떠한 때는 失敗로 끝을 맺는다.⁶⁾

이와 같이 하우스만의 文章을 筆者가 길게 引用한 이유는 이 論文이 創造過程의 洞察을 위해서만 전적으로 바쳐진 詩論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

5) A.E. 하우스만, 「詩의 名稱과 性質」(朴龍喆全集). p. 53.

6) A.E. 하우스만, 前掲論文(朴龍喆全集) pp. 72-73.

이 作詩上의 秘密을 거의 완벽하게 재현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이 文章을 읽고 나면, 朴龍喆의 「詩의 變形에 대해서」와 詩論發想의 유사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하우스만과 朴龍喆 사이의 유사한 특질을 몇 가지 항목으로 더욱 상세히 나누어 설명해보자.

첫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詩作의 진통이다. 그것이 하우스만에서는 「시련과 실망을 포함한 焦慮와 惱苦의 일」로 表現되어 있고, 朴龍喆에서도 「무한한 고난과 수련의 길」 또는 「비상한 고심과 노력의 길」로 기술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하우스만에서 詩作의 진통이 朴龍喆詩論으로 그대로 연장되고 있음이 쉽게 인정된다. 그런데 詩作의 진통이란 「巧妙한 配合, 考察, 技術」 등에 관심을 두는 技巧主義的方法論과는 무관한 것이며, 詩가 詩人의 깊은 영혼 속에서 우러나올 때만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크로체의 다음 文章은 이 점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여러 해 전 일로서 나는 나와 절친한 어떤 훌륭한 詩人으로부터 ‘자기에게 詩가 항상 복통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을 들은 바 있다. 이런 고백을 나에게 말 할 때의 그의 얼굴에서 나는 초조와 고통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후 하우스만의 ‘詩의 名稱과 性質’이란 글 속에서 나는 동일한 내용에 다시 주목하게 되었다. 그것은 시가 송진이나 조개 속의 진주와 같은 ‘分泌物’인 것이며, 시가 태어나는 곳이 ‘위의 명치’ 속이다라는 구절을 읽었기 때문이다.」⁷⁾ 그런데 그것은 하우스만의 경우 ‘위의 명치’란 表現으로, 朴龍喆의 경우에는 「乙亥詩壇總評」에서의 ‘영혼’이 「詩의 變容에 대해서」에 오게 되면 심령의 가장 깊은 곳 즉 ‘피’로 置換되어 있다. 그러나 하우스만에서나 朴龍喆에서도 ‘영혼’ 즉, ‘위의 명치’나 ‘피’가 象徵的 次元이 아닌 抒情的인 次元에 머물고 만다. (「詩의 變容에 대해서」의 副題가 ‘抒情詩의 孤獨한 길’임에 주목을 요한다.) 여기서 抒情的 次元이라 함은 30年代 한국 순수시론의 어떤 限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스토울먼의 주석에 따르면,⁸⁾ 하우스만 詩論에서의 ‘胃의 명치’(胸窩)는

7) Benedetto Croce, The Defence of Poetry, Clarendon Press, 1933; pp. 24-25.

8) R.W. Stallman, 前掲書, p. 138.

‘목구멍 속의 덩어리’ (*Lump-in-the-Throat Criterion*)와 ‘가슴 속의 동통’ (*the Stab-in-the-Heart Test*)로 表現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하우스만의 詩論이 象徵主義 詩論이나 모더니즘 詩論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우스만 자신도 「詩는 理性的인 것보다는 肉體的이다.」⁹⁾라고 斷定을 내리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사정은 朴龍喆의 初期 詩論에서부터 이미 썼을 내보이고 있다. 「그 前에는 詩를(뿐만 아니라 아무 글이나) 짓는 技巧 글씨만 있으면 거저 지을 셈 잡았던 말이야. 그것을 이제 와서야 속에 덩어리가 있어야 나오는 것을 깨달았으니 내 감양에 큰 發見이나 한 듯 可笑」¹⁰⁾라고 朴龍喆은 말하고 있다. 이것은 詩가 技巧에만 집착해서는 안 되며, ‘속에 덩어리가 있어야’ 한다는 朴龍喆 詩論의 커다란 전환임을 뜻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때의 속에 덩어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 詩人의 영혼을 두고 말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박용철 시론에서 볼 수 있었던 「덩어리」→「영혼」→「피」로서의 變移란, 하우스만에서의 「덩어리」→「영혼」→「위의 명치」와 서로 밀접하게 대응되는 관계라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思想의 덩어리가 아니라 一種의 情緒의 덩어리」¹¹⁾인 것일 뿐이다.

둘째로 筆者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같은 詩作의 진통이 어떻게 해서 하나의 詩作品으로 完成될 수 있었는가를 하는 점인데, 하우스만에서나 朴龍喆에서나 그것은 오로지 詩的變容을 거쳐서만 이루어진다고 본다. 슈나이더의 「진통은 인간의 깊은 욕망에 대한 상상적 보상을 통해서 사물 전체의 통일에 대한 욕망으로 變形된다.」¹²⁾라는 文章이 바로 그점을 잘 입증하게 된다. 詩的變容에 대한 하우스만의 진술은 앞의 引用文에서 보듯이, 「소나무에서 스며 나온 樹脂나 병든 조개 속에서 생겨난 眞珠 같은 分泌物」로 비유된 바 있다. 이 중 자연스럽게 스며 나오는 송진보다 병든 조개 속에서 생겨나는 진주야말로 詩的變容으로서 더욱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우스만은 말한

9) A.E. 하우스만, 前揭論文, (朴龍喆全集) p. 71.

10) 朴龍喆全集, 2卷 p. 326.

11) 金允植, 前揭書, p. 339.

12) Elisabeth Schneider, Aesthetic Motive, (R.W. Stallman, 前揭書, pp. 123-124 再引用).

다. 하우스만의 이 비유는 朴龍喆의 「물과 쌀과 누룩을 비저 넣어서 세가지가 다 原形을 잃은 다음에야 술이 생긴다.」¹³⁾라는 비유와 아주 방불하다. 그러므로 詩의 變容을 이루어 놓는 者야말로 「하느님의 다음가는 創造者」라고 하우스만은 일컫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朴龍喆의 詩의 變容의 意味가 하우스만의 시론으로부터 전적으로 영향을 입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變容의 개념이 릴케의 初期詩論의 의미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이다.¹⁴⁾

끝으로, 詩作過程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하우스만과 朴龍喆 사이의 유사성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우선 「詩的變容에 대해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引用해보자.

靈感이 우리에게 와서 시를 잉태시키고는 受胎를 告知하고 떠난다. 우리는 處女와 같이 이것을 敬虔히 받들어 길러야 한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기만 하면 消滅해버리는 이것은 鬼胎이기도 한다. 完全한 成熟에 이르렀을 때 胎盤이 휘둥그란이 돌아떨어지며 새로운 創造物 새로운 個體는 誕生한다.¹⁵⁾

이 文章이 앞에서 引用한 바 있는 긴 文章의 후반부와 내용이 얼마나 유사한가는 더 이상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하우스만에서 詩作의 일단계 과정이 「능동적이기보다 오히려 受動的 非志願的」¹⁶⁾인 것으로 보는 점은 박용철의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變種發生의 찬스」와 동일한 의미의 진술이다. 그러나 詩作의 完成이 受動的 기다림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제이단계의 과정으로서 의식적 창조활동을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筆者는 또 한가지 사실을 더 附記하고 싶다. 그것은 「詩的變容에 대해서」의 발상이, 하우스만의 「詩의 名稱과 性質」로부터 유발되어 「乙亥詩壇總評」에서 이미 詩論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으며, 드디어 「詩的變容에 대해서」의 시론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13) 朴龍喆全集, 2卷, p. 9.

14) 金允植, 「龍兒 朴龍喆 研究」(學術院論文集, 9輯, 1970)

15) 朴龍喆全集, 2卷, p. 8.

16) A.E. 하우스만, 前掲論文, (朴龍喆全集), p. 72.

「詩的變容에 대해서」(1939)의 주요한 핵심이 될만한 內容들은 그대로 모두 「乙亥詩壇總評」(1935)의 論文 속에 收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體驗’과 ‘變容’이 「乙亥詩壇總評」에서도 중심사상을 이루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예컨대 「乙亥詩壇總評」에서의 「한송이 꽃으로 한마리 새로 또는 한개의 毒茸으로 變容시킨 수 있는 能力에 있다.」는 表現은 「詩的變容에 대해서」의 「빛속에서 자라난 파란꽃, 붉은꽃, 흰꽃 혹은 험하게 생긴 毒茸」으로 그대로 전용된 한 좋은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마리 새’는 그 실례가 詩的變容을 설명하는 데는 부적절했기 때문에, 「詩的變容에 대해서」에 와서 빠져 있을 따름인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는 ‘영혼’이란 말이 「詩的變容에 대해서」에 오게 되면 ‘피’로 置換되는 것이다.

4

朴龍喆의 詩論에 있어서 하우스만으로부터 받은 영향은 또다른 측면으로도 고찰이 可能하다. 「詩的變容에 대해서」가 創造過程으로서의 시론이라면, 다음에 논술하려고 하는 것은 「意味의 문제」와 결부되는 시론이라 할 수 있다.

詩論에서 의미의 문제가 거론될 경우, 대체로 그것은 「詩作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의미는 어떻게 陳述되는가.」 또는 「詩의 意味와 讀者의 反應은 어떠한가.」 등으로 나누어 설명되는 것이 통례다. 그 중 「詩의 意味와 讀者의 反應」 쪽에 주로 관심을 둔다면, 우리는 그것을 ‘패러프레이즈論’ 혹은 ‘패러프레이즈反論’(heresy of paraphrase)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 概念이 最初로 批評의 영역에 紹介되고 또한 논의 되기 시작한 것은 1947년의 클리안스·부룩스에 와서이다.¹⁷⁾ 그 후로 그것은 批評論의 주요한 爭點이 되어 왔고, 블랙머(R.P. Blackmur), 어번(Urban), 르네·웰렉(René Wellek), 슈잔·랑거(Susanne K. Langer) 등의 肯定論者들과 윈터즈(Yvor Winters), 랜섬(John Crowe Ransom) 등의 否定論者들로 나뉘어 논쟁이 계속되면서 오늘날 그것은 古典的인 意義를 지니게까지 발전되었다. 그러니까 하우스만

17) Cleanth Brooks, *The Well Wrought Urn*, Harcourt, Brace & World, New York. 1947. pp.192-214.

의 「詩의 名稱과 性質」이 발표되고 나서도 거의 15년이나 지나서야 「패러프레이즈反論」의 출어가 생겨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하우스만의 시론과 부록스의 시론사이에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스톨올먼의 「詩論選集」이 이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스톨올먼 編著의 「패러프레이즈」라고 제목을 부친 章의 맨앞에 하우스만의 시론이 들어가 있는 사실에서 하우스만의 시론이 패러프레이즈 이론의 모태임을 확인시켜 준다.

詩는 말해진 內容이 아니요, 그것을 말하는 方式이다. 그러면 그것은(內容 그 자체) 분리해서 따로 研究할 수 있는 것이냐? 言語와 그 知的 內容 즉 의미와의 結合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긴밀한 結合이다. 混成되지 않은 純然한 詩. 의미에서 獨立된 詩, 그런 것이 어디 있겠느냐? 詩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에도—언제나 그러한 것이지만—그것을 따로 끌어내는 것은 재미스럽지 않다……意味는 지성에 속하는 것이나 시는 그렇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하면 18세기는 더 좋은 시를 썼을 수 있을 것이다.¹⁸⁾

이 部分은 하우스만의 詩論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文章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文章 속에 감겨 있는 뜻이 오늘날 안목에서 볼 때 대단한 詩論이라고까지는 할 수도 없다. 詩에서의 內容(意味)과 言語 사이의 긴밀한 結合關係에 대한 초보적인 認識의 限界를 별반 넘지 못하는, 한 素朴한 理論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한다. 그렇더라도 이 文章이 지니고 있는 意義는 다른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부록스보다도 15년이나 앞서서 하우스만이 ‘패러프레이즈反論’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패러프레이즈反論’이란 부록스에 의하면 詩가 패러프레이즈化될 수 없다는 見解를 말한다. 좀더 부연한다면, 詩에 있어서 形式은 內容과 分離될 수 없는 것이며, 陳述이 詩의 要素인 것은 사실이나 陳述은 詩의 本質이 아닌 것이고, 그것이 시의 다른 要素들보다도 결코 우월하지도 않다는 見解, 그것이 바로 ‘패러프레이즈反論’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또다시 부록스에 의하면, 「패러프레이즈는 詩의 本質을 구성하는 참된 意味核이 아니다.」¹⁹⁾

18) A.E. 하우스만, 前揭論文, (朴容喆全集) p. 60.

19) Cleanth Brooks, 前揭書, p. 197.

사실 文學批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은 대부분 ‘패러프레이즈反論’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것을 잘못 인식한다면 시작품과 그 속에 담긴 ‘진실’의 관계를 왜곡하게 되며, 또한 不完全한 形式을 두고 信念의 문제만을 제출하기에 이르든가 아니면 시작품을 形式과 內容으로 갈라 놓는 畧를 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극단적으로는 科學이라든가 哲學 혹은 이 데올로기와 더불어 비본질적인 陳述을 내세우게 되고 만다. 그러나 시에서의 陳述은 그 陳述의 眞實 혹은 虛僞에 의해서가 아닌 劇的 特性에 의해서 판단된다. 왜냐하면 詩는 논리적 구조가 아닌 극적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부록스에 의하면, 구조란 그 자신도 만족스러운 用語로 볼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지만, 韻律樣式과 이미지의 호응보다도 더욱 內的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구조는 분명코 ‘內容’을 ‘담고’ 있는 일종의 싸개로서의 形式을 생각하는 그러한 관습적 의미로서의 形式이 아닌 것이다. 구조란 명백히 어디서나 시작품을 만들어 내는 媒體(언어)의 본질 여하에 따라서 조건지워진다. 媒體의 본질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데 그 해결은 결국 媒體의 순서잡기라 할 수 있다.」²⁰⁾ 이때의 구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시에서의 앰비규티나 파라독스 또는 아이러니 등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시의 본질적 구조는 陳述의 合理的 혹은 논리적 구조와는 다른 것이다. 시의 구조는 건축 및 회화 구조에서의 긴장의 패턴과 발레 및 음악의 시간예술에서 나타나는 조화와 균형의 패턴 그리고 회곡 구조에서의 상징적 행위 등을 요구한다.

이상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詩의 名稱과 性質」이 번역된 이후 3.4년간의 침묵 끝에 발표된 朴龍喆의 「乙亥詩壇總評」과 「技巧主義說의 虛妄」에서 ‘패러프레이즈反論’을 검증함으로써 하우스만의 영향관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자.

먼저 하우스만의 시론에서 볼 때, 「意味란 것은 그 韻文 자체에 비교할 때에는 하잘것 없는 어리석은 落望시키는 물건」²¹⁾으로 表現된 바 있다.

20) Cleanth Brooks, 前掲書, p.194.

21) A.E. 하우스만, 前掲論文, (朴龍喆全集) p.66.

나는 詩的 想이라는 그런 것이 따로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내 생각 같아서는 散文으로 表現하기에 너무 고귀한 진리, 너무 심원한 관찰, 너무 高揚된 감정이란 있지 않다.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최고는 이렇다—어떠한 想들은(다른것들은 그렇지 않은데) 친절하게도 시적 표현에 몸을 허락하는 것이고 또 그것들은 시로부터 세계 영광을 입히고 저를 거진 變容시킬만한 騰揚을 받는 것이요, 시가 그것과 別物이라는 것도 分析에 의해서가 아니면 관찰되지 못한다.²²⁾

여기서 보듯이, 하우스만은 시비평에서의 想(內容)이 그리 중요한 시의 요소가 아니라는 점, 또한 散文으로 表現하기에 너무 고귀한 진리란 있을 수 없다는 점, 그러므로 시에서의 內容은 시적 표현과의 긴장된 結合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말하고 있다. 이점에서 볼 때, 하우스만의 시론이 ‘패러프레이즈反論’에 아주 가까이 접근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가게 된다.

다음에는 朴龍喆의 경우를 살펴보자. 주지하다시피 朴龍喆의 「乙亥詩壇總評」은 林和의 「曇天下의 詩壇一年」에 대한 反駁形式으로 쓰여진 評文이며, 그 內容으로는 金起林과 林和에 대한 批判과 鄭芝溶과 「詩苑」誌의 詩에 대한 옹호, 이 두 部分으로 要約될 수 있다. 특히 정지용의 시 「유리창」에 대한 해설은 「好辯의인 詩에 대한 對蹠의 參考를 提供하러 한다」²³⁾는 朴龍喆의 陳述이 아니더라도, 「유리창」의 해설이 패러프레이즈反論으로서의 詩批評이었음이 금세 드러난다. 이와 같은 사정을 보다 잘 알기 위해서는 「曇天下의 詩壇一年」에 나타난 林和의 詩論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나, 이 자리는 그럴 계제가 아니다. 단적으로 말한다면 林和와 朴龍喆 詩論의 差異는 前者가 ‘辯說’의 詩論임에 反해서 後者가 ‘辯說以上’의 詩論이라고 규정 짓고 싶다. 林和의 ‘辯說’의 詩論이란 일종의 內容優位論 詩觀을 지칭한다.

① 時代現實의 본질이나 그 刻刻의 細細한 轉移의 가장 敏捷하고 正確한 認知者이며 그 時代가 歷史의 前進를 위하여 體現한 바 時代的 精神의 가장 適切 代辯한 代辯者인 데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²⁴⁾

② 現實의 본질이나 刻刻의 轉移를 敏速 正確히 認知하는 것은 인간 일반에게 요

22) A.E. 하우스만, 前掲論文, (朴龍喆全集) pp. 58-59.

23) 朴龍喆全集, 2卷, p. 89.

24) 林和, 「曇天下의 詩壇一年」(文學의 論理), p. 611.

구되는 理想이오 詩人은 이것을 認知할 뿐 아니라 영혼의 가장 깊은 속에서 그것을 體驗하는 사람이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까지도 思考者 一般에게 요구될 수 있는 것이요. 그 위에 한걸음 더 나아가 最後로 詩人을 決定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깊이를 가진 自身을 한송이 꽃으로 한마리 새로 또는 한개의 薔草로 變容시킬 수 있는 能力에 있다.²⁵⁾ (下線, 筆者)

①은 林和의 글에서, ②는 朴龍喆의 글에서 가려뽑아 본 것이다. 그런데 두 文章의 冒頭가 同一한 內容으로 되어 있는 점은 ②가 ①을 批判한 글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두 詩論家의 차이는 명백하게 드러난다. ①이 現實生活과 時代의 精神을 「가장 솔직 대담하게 대변」하는 것이 詩論의 본질이라고 보는데 反해서, ②에서의 詩人과 非詩人을 구별짓는 일은, 現實生活과 時代精神을 대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가장 깊은 속에서 체험’한 것을 詩的으로 變容化시킬 수 있는가의 연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사실 ‘辯說’이란 用語는 朴龍喆에 의해서 林和를 辯說主義者로 규정짓는 데서 처음으로 使用되었다. 그것은 박용철의 「용광로과의 킁을 들던 시인들이 촉망받던 당에서 별반 진경을 보이지 못한 것은 프로과에 속하는 몇 시인들과 마찬가지로 辯說主義의 禍害인것 같다」²⁶⁾는 진술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다음에 ‘辯說’의 시론과 「辯說以上」의 시론을 나타내고 있는 例를 하나 더 들어본다.

① 아름다운 辯說, 적절한 辯說을 누가 사랑하지 않으랴, 그것은 우리 인생의 기쁨의 하나다. 시가 언어를 媒材로 하는 이상 최후까지 그것은 일종의 辯說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정되고 응축되어서 그 가운데의 一語一語가 일상 용어와 外觀의 상이함은 없으나 시적 구성과 질서 가운데서 승화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²⁷⁾

② ‘아름다운 辯說, 적절한 辯說을 누가 사랑치 않으랴. 그것은 우리 인생의 기쁨’이라는 소위 ‘辯說詩’에 대한 氏의 돌연한 수궁은 곧 生活의, 現實의, 문제의 辯說이 아니라 感情의 辯說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生活의 좋은 辯說者 나아가서는 새로운 世界의 創造의 夢상의 辯說者이라고 노력할 것이다.²⁸⁾

25) 朴龍喆, 「乙亥詩壇總評」, (朴龍喆全集 2卷) p. 87.

26) 朴龍喆, 上揭論文, p. 97.

27) 朴龍喆, 上揭論文, p. 87.

28) 林和, 「技巧派와 朝鮮詩壇」, (文學의 論理) pp. 659-660.

이 한쌍의 文章은 앞서의 한쌍의 引用文과는 反對現象을 보여주는데, 즉, 朴龍喆(1)이 林和(2)로부터 거꾸로 批判당하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引用文에서 보듯이 박용철은 거의 완벽한 「辯說以上の 詩論」을 갖추고 있다. 이것은 하우스만의 「言語와 意味와의 긴밀한 結合」과 完全히 一致되는 현상이며 그러므로 ‘패러프레이즈反論’ 과도 完全히 符合된다 할 것이다. 이에 비해서 ②는 우선 論理의 혼란을 나타내 준다. ①에서 朴龍喆이 辯說을 수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林和는 朴龍喆을 辯說主義者로 오도하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여기서 林和의 시론은 계속해서 「生活의, 現實의, 문제의 辯說」을 주창한다. 그것은 林和의 시론을 「辯說의 詩論」이라고 규정할 충분한 이유가 입증되고도 남는다.

5

朴龍喆의 詩論에 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의 시론이 바로 하우스만의 시론에 근거가 닿아 있음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세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겠는데, 그 하나는 創造過程에 대한 시론인 것이고, 또 하나는 ‘패러프레이즈反論’의 시론이다. 朴龍喆이 創造過程에 대한 시론으로부터는 「詩의 變容에 대해서」를 형성시켰고, 다시 ‘패러프레이즈反論’을 受容함으로써 林和와의 論爭을 거쳐 「辯說以上の 시론」을 확립한 사실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시 朴龍喆이 하우스만의 어떤 詩論을 受容해서 金起林을 批判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한 일이라 할 것이다.

먼저 하우스만의 문장에서 해당 부분을 들어보자.

英國에서는 完全히 한 時代동안 地位가 ‘윳트’라는 正當하고 特殊한 일흔을 가진 아조 만에게 寡奪당해 있었다. 이 ‘윳트’라는 것은 近代的 意味의 ‘윳트’가 아니라 존스博士가 ‘相異한 이미지(物象)의 結合 或은 外樣으로 相異한 事物 가운데서 隱秘한 類似의 發見’이라고 定義한 것이다. 이 發見이 詩 아닌 것은 ‘에나그램’이 詩 아닌 것과 다름없다. 그것들이 주는 愉樂은 純全히 智性的인 것이요. 智性的으로도 輕佻瑣細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17世紀 英國의 知識階級이 50年 以上

을 두고 詩 가운데서 主로 찾고져 하고 發見하든 愉樂이다. 그 時代人에게 이것을 提供하든 文人들의 얼마는 偶然히 相當한 詩人들이었다. 그레 비록 그들의 詩가 大體로 非和音의이요. 귀먹은 數學者들이 外形에 있어서 기리마져 자르고 다발로 묶은 것이지만은 그들의 詩의 어떤 小部分은 아름답고 또 至極히 훌륭하기까지 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것으로 讀者의 興味를 끌려하든 것은 아니다. 詩의 本質은 아닌 直喩와 隱喩가 그들의 마음을 빼앗은 急先務였고 그 比喩가 언데서 가져온 것일사투 稱讚되었든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副隨物들이 그들의 意思를 더욱 分明하게 하고 또는 그 主想을 鮮明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느끼지 아니했다. 이것을 修飾으로 보든것도 아니요, 어떤 '이미지'가 사람을 걸게하는 獨立한 힘이 있는가 없는가도 상관하지 아니했다. 그저 놀래고 재미보는 것이 唯一한 所願인 多衆을 그 新奇로 놀래게 하고 그 巧妙로 재미보이는 것이 그들의 目的이었다. 29)

(下線, 筆者)

두말할 필요 없이, 이 引用文에서 批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17세기 영국의 形而上學派詩이다. 形而上學派라는 명칭이 처음 使用되었던 것은 이미 당대의 샤뮤엘·존슨이 형이상학과 시인의 하나인 존·단에 대해서 「그가 가장 이질적인 사상도 폭력으로 結合시킨다.」라고 비난할 때부터이지만, 바로 그 理由 때문에, 엘리엇에 의해서 形而上學派에 대한 새로운 評價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이다. 同一한 現象을 놓고서 한 쪽은 肯定的의 시각을 취하는데 反해서, 다른 쪽은 否定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것은 純粹詩論과 뉴우크리티시즘詩論의 差異라고도 말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하우스만의 시론과 엘리엇트의 시론 사이의 차이일 수도 있고,朴龍喆과 金起林 시론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위의 引用文에서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形而上學派詩는 知性的인 시이기 때문에 하우스만의 서정시 및 순수시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도무지 바람직하지 않다. 형이상학과의 시가 서정시와 구별되는 경우는 ① 시의 用語가 日常口語體의 언어로 되어 있다는 사실과 ② 시가 표면상 논리적이고 재치있고 분석적일 때인 것이다. 둘째, 형이상학과의 시에는 윗트가 매우 중시되나 그것은 「新奇로 놀래게 하고 巧妙로 재미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非詩라고까지 단정하고 있다. 여기서 뉴우

29) A.E. 하우스만, 前揭論文, pp. 54-55.

크리티시즘의 시론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뉴우크리티시즘은 奇想(*conceit*)을 시의 중요한 본질이라고 판단한다. 奇想은 思想과 比喩가 同一化되었을 경우나 이미지가 思想의 바탕이 되었을 때에 성공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그것은 강인한 理性에서 솟아 나오고, 깜짝 놀라게 하는 아름다운 순간이 따르는 놀라운 透視의 결과를 가져온다.³⁰⁾ 셋째로, 동떨어진 比喩들이 思想을 선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단지 新奇와 巧妙로 떨어지고 만다. 이 部分에 대한 하우스만의 생각은 잘못된 見解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形而上學派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思想과 感情의 융합」이기 때문이다. 詩人이 異質的인 要素들을 結合시킬 때에, 奇想 윗트 과장법 등의 비유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이와 같은 하우스만의 시론이 朴龍喆에게 어떻게 受容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 文章을 引用해보자.³¹⁾

① 아무런 名考案家라도 可能以上の 速度에 물러서는 이 怪奇에 다다르고 말뿐이다. 金起林氏가 그의 諸詩論에서 生理에서 出發한 詩를 공격하고 智性的 考案을 말할 때에 이 위험은 內藏되어 있었고,……우리는 이러한 出發點을 가져서는 안된다. 先人과 같은 詩를 쓸 우려가 있으니 우리는 새로운 考案을 해야 한다는데서 出發하면 거기는 衣裳師에로의 길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出發點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全生理에 있어 이미 先人과 같지 않기에 새로이 詩를 쓰고 마로이 할 말이 있기에 새로운 詩를 쓴다.

② 새로운 의식적 탐구 이것은 세계문단의 思潮와 관련된 바이지만은 이 近年에 우리 사이에서도 新奇로운 또는 街奇的인 문학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金起林氏는 이 풍조의 선구자요 또 가장 열렬한 실천자 대변자이다.

박용철로서는 典範의 詩人으로 생각해온 鄭芝容과 함께 金起林이 이미지즘派와 카톨릭派에 속하는 限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용철의 김기림비판이 가능했던 일은 아마도 하우스만 시론의 절대적 권위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批判의 強度가 어느 정도이었던가는 김기림 시론에 대해서 박용철의 「전능력을 경주해서 격파하자면 다년간의 숙제이었다.」는 表現으로 미루어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30) George Williamson, *The Donne Tradition*, New York, 1958, pp. 31-32.

31) 朴龍喆, 「乙亥詩壇總評」, (全集 2卷) pp. 82-84.

이와 같이 朴龍喆의 金起林 批判에서도 하우스만의 시론은 林和批判에서 처럼 그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가령, 하우스만의 形而上學派詩를 批判할 때에 기준으로 삼았던 ‘智性的인 詩’가 朴龍喆의 金起林 批判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위 引用文 ①에서 보듯이, 「金起林氏가 그의 諸詩論에서 生理에서 出發한 詩를 공격하고 智性的의 考案을 말할 때에 이 위험은 내장되어 있었고」라고 表現된 것이 그것이다. 또한 이것은 하우스만의 「詩는 理性的인 것보다는 肉體的이다」라는 表現과도 매우 흡사하다.

또한 引用文 ②에서의 「新奇로운 또는 衒奇的인 문학현상」은 하우스만의 「新奇로 놀래게 하고 巧妙로 재미 보이는 것」과 完全히 一致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하우스만의 「동떨어진 比喩들이 思想을 선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단지 新奇와 巧妙로 떨어지고 만다.」의 진술은 그대로 박용철의 「氣象圖」 批判에서 적용되고 있다. 박용철에 의하면, 「氣象圖」는 「多數한 악기가 雜然히 모여 소리를 넘으로 교향악을 이룰 수 없고, 「詩의 各部는 뽀뽀히 다라나 버리고 등실하게 반혀들리지가 않는다.」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詩人的 敬服할만한 努力과 계획에도 불구하고 詩人的 精神의 연소가 이 巨大한 素材를 化合시키는 高熱에 達하지 못하고 그것을 겨우 接合시키는데 그쳤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처럼 김기림 비판에서의 朴龍喆詩論은 形而上學派에 대한 하우스만의 시론을 어느것 하나 빠뜨리지 않고 원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形而上學派詩批判에서의 하우스만 詩論의 결합이 朴龍喆의 金起林 批判에서도 그대로 답습되었기 때문에, 이 시론이 그의 다른 詩論보다 훨씬 實이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6

以上에서 檢討한 內容을 다시 要約해서 說明해 보기로 하자. 朴龍喆의 詩批評活動은 짧은 期間(1930~1938) 사이에 이루어졌으나, 그 期間 중에도 그의 詩論을 初期詩論과 後期詩論으로 갈라볼 수 있는 분수령 구실을 하는

계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初期詩論이 詩論으로서의 理論的인 立場을 갖추지 못한 初보적인 情緒理論에 머물고 있는데 反해서, 後期詩論에 와서는 상당한 理論의 體系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아서 입증된다. 그러면 그와 같은 분수령의 시기를 어떻게 잡아볼 수 있는가? 우리는 서슴치 않고 朴龍喆이 A.E. 하우스만의 「詩의 名稱과 性質」(1933)을 「文學」誌 2號에 번역하고 나서라고 斷定할 수 있다.

그렇다면 西歐의 詩論에서 하우스만이 자리잡고 있었던 위치가 어느 정도 이었던가. 당시로서 하우스만의 시론이 새로운 이론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엘리엇트의 形而上學派詩에 대한 再評價가 1921年 그리어슨(Herbert J.C. Grierson) 교수의 詞華集에 대한 유명한 書評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하우스만의 시론이 시평에 대한 이론이 박약했던 한국문단의 상황에서 朴龍喆에게 끼친 영향은 절대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우스만에 의해서 朴龍喆 시론에 끼친 영향을 우리는 세 方向에서 고찰할 수 있다. 그 하나는 創造過程에 대한 詩論을 지적할 수 있다. 거기서 朴龍喆의 유일무이한 「詩的變容에 대해서」가 이루어졌다고 보겠다. 예컨대 하우스만에서의 (목구멍속의) 「덩어리」→「영혼」→「위의 명치」(胸窩)의 시론이 박용철에서 「덩어리」→「영혼」→「피」의 시론으로 對應되고 있는 관계를 살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變形’을 거쳐서 形象化된다는 사실을 두 詩論家의 共通된 見解로 밝힐 수 있었다.

두 번째로 하우스만이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은, 스토울먼에 의해서 입증된 바 있는, 하우스만의 ‘패러프레이즈反論’이 박용철의 辯說以上の 詩論으로 受容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 辯說以上の 詩論은 급기야 林和와의 論爭을 야기시키는 촉매 구실을 한 바 있다.

셋째로 朴龍喆이 受容하고 있는 또하나의 하우스만의 시론은 하우스만이 17세기 形而上學派詩에 대한 批判을 가할 때에 적용된 바 있는 한 方法論이라 말할 수 있다. 朴龍喆은, ‘패러프레이즈反論’으로 주장해서 林和批判으로 발전했듯이, 이 方法論을 受容해서 金起林批判으로 나간 바 있다. 그러

나 이 경우, 우리의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우스만의 시론이 形而上學派詩에 대한 批判에서 그 결함을 드러냈듯이, 또한 박용철의 김기림 批判에서도 그대로 결함을 노정시키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金起林：詩論(白楊堂), 1947.

金允植：韓國近代文藝批評史研究(한얼문고), 1973.

朴龍喆：朴龍喆 全集(詩文學社), 1939.

李昌培：20世紀 英美詩의 形成(民衆書館), 1972.

林 和：文學의 論理(學藝社), 1940.

鄭漢模：韓國現代詩文學史(一志社), 1974.

金允植：「龍兒朴龍喆研究」(學術院論文集, 9輯), 1970.

韓啓傳：「韓國近代詩論研究」(국어교육, 26輯), 1975.

Benedetto Croce; *The Defence of Poetry*, Clarendon Press, 1933.

Cleanth Brooks; *The Well Wrought Urn (A Harvest Book)*, 1947.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Uni., 1969.

R.W. Stallman, ed., *The Critic's Notebook* (Uni. of Minnesota Press), 1950.